

# 물 사랑 실천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201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서울숲에서 개최  
「나부터 물사랑 더 큰 대한민국」 주제로 진행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사랑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201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3월 22일 서울숲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 차관,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은 삶의 필수 요소이며, 물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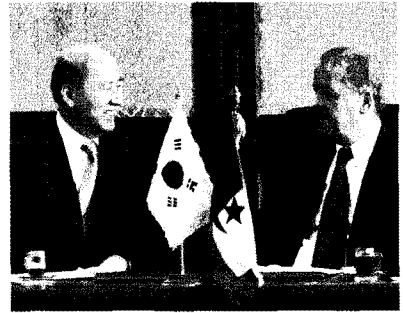
지고 있는 환경·미래·에너지·문화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자 역설했다. 또한 물 부족에 대비해 물그릇 키우기, 홍수에 대비한 재난방지,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과 같이 우리가 당면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식 치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녹색성장

의 거점이 될 것이며, 4대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마을의 실개천도 이와 연계해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며 물사랑 및 물 살리기 실천에 온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폐트병자원순환협회 한기선 부회장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되는 등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16명(친수자 8인)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음악회와 퍼포먼스가 공연됐다. 음악회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물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테마별로 전달하고, 이와 더불어 샌드애니메이션 및 깃발 퍼포먼스로 주제 전달을 배가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3월 한 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 기간으로 정해 물 관련 각종 심포지엄, 물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하고 물의 소중함을 홍보해 생활 속에서의 물사랑 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

# 국내 물산업, 북아프리카 본격 진출

환경부, 알제리 수자원부와 상하수도 협력과제 공동 합의  
국내 물기업, 알제리 정부 등 100여 명 대상 기술 설명회 개최



국내 물산업 관련 기업의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알제리 현지에서 열린 알제리 수자원부 장관과의 양자회담과 '제1차 상하수도 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의 수질개선사업 추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수(水)처리 환경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상하수도분야 협력과제 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한강종합개발사

업과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엘하라쉬 하천의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고, 알제리 측이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하라쉬 하천은 알제리에서 시내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으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공장폐수 유입 등에 의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제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댐과 상하수도 등 물 관리 분야에 총 19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장관회담을 통

해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상하수도 분야 기술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알제리의 상하수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회담과 더불어 알제리 정부와 국영기업 등 상하수도 사업 발주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관련 기술과 실적을 소개하는 기술협력 컨퍼런스를 현지에서 개최했다. 이에 알제리 측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공원화 및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수질관리 원격감시체계 운영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㉞

# 물산업 미래 청년 리더 희망의 맥을 잇다

1~2기 양성 배출에 이어 3기 입교식 열려  
기업 맞춤형 글로벌 인재 집중 양성



환경부와 우리 협회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 양성과정' 3기 입교식이 지난 3월 22일 협회 아라홀에서 열렸다.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55명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협회는 3월 말부터 약 4개월 가량 물산업 분야의 기초 역량과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비즈니스 역량 배양을 위한 집중 트레이닝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후 물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과정(기업 인턴십)을 병행하여 운영하게 된다.

물산업 전문가의 국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되는 본 과정은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 등을 담당할 고급 기술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인력 양성과정으로, 향후 관련 기업체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물산업 PM 양성과정에서는 국제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함께 외국

어 교육을 받게 되고, 특히 물산업 고급 기술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실무 훈련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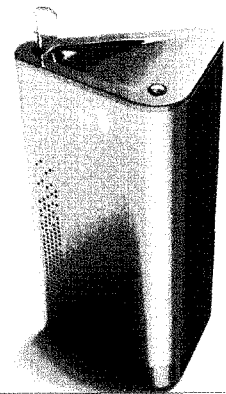
또한 집합교육 기간 중 30시간의 해외 현장 견학 및 체험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해외 물산업의 벤치마킹 기회를 갖고, 우리의 물산업 진출 전략을 팀별 과제로 도출하게 된다.

입교식에 참석한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의 기업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교육생 개인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임은 물론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명심하고, 물산업을 이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봄맞이 '새 옷'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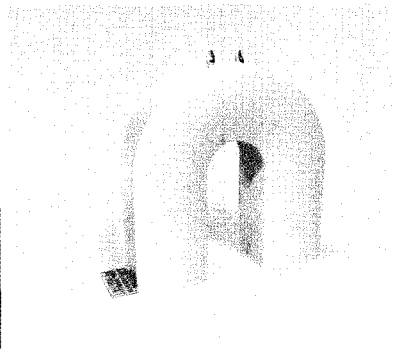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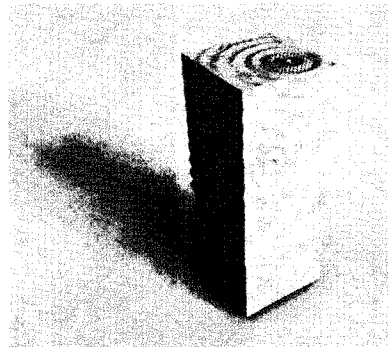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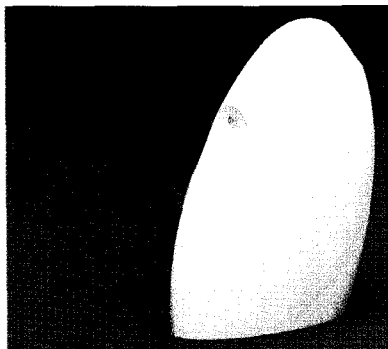
새로운 디자인 도입한 아리수 음수대·샘터 보급  
음수대 공급배관에 깨끗한 STS강관 적용



서울시가 아리수 음수대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 및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수대를 맑고 깨끗한 아리수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한다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사업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 중 옥내배관이 노후하여 녹물이 나올 수 있는 학교에 음수대 전용배관과 음수대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 동안 558개교에 8,922대의 음수대를 설치했으며 학생들의 음용률도 64%로 높아졌다. 올해 부터는 새로 도입된 4가지 디자인의 음수대를 72개 학교에 1,500대, 시 산하 공공기관 271개 기관에 800여 대를 각각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 등에 설치될 샘터 디자인도 서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세련되게 개선된다.

아리수 샘터는 2009년 시민공원 등에 4대가 시범 설치되었으며, 올해 20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샘터는 돌, 대



리석 등을 이용한 조형물과 수도꼭지를 조화롭게 배치해 조각 작품이 연상되는 예술적 디자인을 가미했다. 또한 공급배관은 스테인레스(STS)강관으로 전용배관을 직결로 신설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야외에 설치된 기존 음수대와는 다르게 꼭지에서 항상 시원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공원 분위기에 맞는 산뜻한 디자인으로 바꾸어 시민들의 음수대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맑고 매력적인 디자인 도시, 서울의 경관과 잘 조화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음수대와 샘터 설치로 아리수가 시민고객들께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